

축구대표 강만규 GM대우 스키우트

포천시에서 활동하던 강만규(23) 선수가 지난달 28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GM대우에 연봉 3천200만원에 정식 입사했다.

강만규 선수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포천시 축구대표로 활약해 포천시 축구의 위상을 한단계 올린 선수다. 강 선수는 연봉면 소재 1기갑여단 1396부대 소속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실력을 인정받아 스키우트됐다.

축구연합회는 "포천에서 실업팀에 스키우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강 선수의 실업팀 입사로 포천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3회 포천체전 포천동 1위

포천시가 지난 18일 제3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치른 제3회 포천체전에서 포천동, 일동면, 가산면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메달과 순위가 집계됐다.

14개 읍·면·동 선수들이 육상, 축구, 배구,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씨름, 게이트볼 등 8개 종목에 출전해 경합을 벌였다.

▶소흘읍 금1(축구), 동2(배구, 육상 100m) ▶군내면 금1(테니스·여복), 은1(배구) ▶내촌면 금1(배구) ▶가산면 금2(육상 100m, 마라톤·여, 배드민턴·여복), 동2(게이트볼, 노장마라톤) ▶신북면 금2(배드민턴·남복, 마라톤·남), 은2(배드민턴·혼복, 테니스·남복), 동2(배구, 배드민턴·여복) ▶창수면 은2(배드민턴·남복, 씨름) ▶영중면 동1(볼링) ▶일동면 금3(육상 100m·남, 육상 100m·여, 게이트볼), 은1(축구), 동3(배드민턴·남복, 마라톤·여, 씨름) ▶이동면 은2(테니스·여복, 마라톤·남), 동2(축구, 배드민턴·혼복) ▶영북면 은1(육상 100m·남), 동1(테니스·남복) ▶관인면 은1(게이트볼), 동1(육상 100m·남) ▶화현면 금1(볼링) ▶포천동 금4(배드민턴·혼복, 테니스·남복, 노장마라톤, 씨름), 은3(볼링, 마라톤·여, 배드민턴·여복), 동2(테니스·여복, 마라톤·남) ▶선단동 은1(노장마라톤), 동1(축구) ※읍·면·동 직제 순.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전국체전 입상선수 한자리에

포천시 금2, 은1 쾌거

포천시는 지난 25일 제86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포천시 선수들이 포천시청 사회의실에서 함께 모였다.

포천시는 지난 25일 제86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포천시 선수들이 포천시청 사회의실에서 함께 모였다. 포천시는 지난 25일 제86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포천시 선수들이 포천시청 사회의실에서 함께 모였다.

특히 육상 400mH의 이문재 선수는 포천시청 육상부 창단이후 첫 금메달이고, 포천고 배드민턴은 1981년 창단 이후 전국체전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해 의미를 더했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격려를 통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선수들의 원활한 훈련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광섭 포천고 교장은 "포천고가는



포천시는 지난 25일 제86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포천시 선수들이 포천시청 사회의실에서 함께 모였다.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1년 창설이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며 "초등학교 선수 발굴과 육성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 초등학교 배드민턴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배드민턴 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의 전국체전 출전성적은 ▶포천시청 ▶역도 이우성(105kg)

기권, 변재영(94kg) 후보, 김경희(48kg) 4위 ▶육상 이문재(400mH) 금1, 강혜민(800m) 4위 ▶배드민턴 차운숙(단체전) 8강탈락 ▶태권도 최희중(미들급) 예선탈락 ▶일반부 ▶수영 김민정(싱크로나이즈) 은1 ▶포천중고 ▶역도 김준태 5위 ▶포천고 ▶배드민턴 강혜민, 박희정, 이현진, 임미선, 주은애, 최아름, 홍수정, 황승기 금1(단체)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아구연합회 전국대회 경기도 대표 출전

포천시아구연합회(회장 장승호)는 오는 11월 5일부터 개최되는 2005 KABA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왕중왕전에 포천시아구연합회 소속 포천자이언츠팀이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한국사회인야구협회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규모의 리그통합으로 사회인야구동호인의 자변확대 및 프로와 아마의 교류를 통한 사회인야구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개최된다.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역예선을 거친 전국 시·도 대표 16개 아마야구팀 참가하는 대회는 오는 11월 5일과 6일, 12일까지 3일간 결선을 치른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5 KABA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왕중왕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포천시 야구연합회.

관인 게이트볼 정상 올라 제2회 노인회 포천시지회장기



지난 26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노인회 포천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선수들과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회장 이동해)는 지난 26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노인회 포천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게이트볼을 통한 지역화와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게이트볼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관내 31개 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경기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노인회 김상운 부회장의 노인강령낭독, 지난해 우승팀인 관인의 우승기 반납, 이동해 지회장의 대회사, 박운중 포천시청, 고조흥 국회의원, 홍성훈 포천시의회회장의 축사, 정길철, 원순옥 선수의 선수대표선서, 내빈 시구로 이어졌다. 대회 결과 우승은 관인C팀, 준우승 가산A팀, 공동3위 유금A·포천B팀,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일동·영중초優勝 JCI 초등학교 축구대회

제21회 JCI Korea-포천 회장기배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일동초와 영중초가 1부와 2부에서 각각 우승했다.

JCI Korea-포천(회장 윤석준)은 지난 21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관내 18개 초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21회 JCI Korea-포천 회장기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유소년 축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예선은 조별 토너먼트를 통해 결승에 올라 1부에서는 일동초와 왕방초가 맞붙어 2대0으로, 2부에서는 영중초와 정성초가 경합해 1대0으로 각각 우승했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진수(일동초)와 정현수(영중초)가 선정됐으며, 포천·선단초와 이곡·축석초가 1부와 2부에서 각각 공동3위를 차지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탐방 4

포천시청 직장운동부 배드민턴부 차운숙 코치

포천출신 선수 능동적 영입 절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배드민턴부는 지난해 2월 5일 창단된 팀으로 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4번째 팀이다.

포천여중과 포천고의 엘리트 육성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재연 선수 등 결출한 스타선수를 배출한 포천은 실업팀의 부재로 그동안 10여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해 놓고도 포천시 선수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을 인식, 뒤늦게 실업팀을 창단 하게 됐다.

배드민턴부는 차운숙(29) 코치를 위시해 장여진(22)·김경화(21)·정승혜(21)·양은혜(19), 이단비(18·입단예정) 선수로 구성돼 있다.

차운숙 코치, 김경화·정승혜 선수는 지난해 2월 5일 위촉됐고, 장여진 선수는 지난 3월 17일, 양은혜 선수는 지난 1월 1일자로 위촉돼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배드민턴부는 차운숙(29) 코치를 위시해 장여진(22)·김경화(21)·정승혜(21)·양은혜(19), 이단비(18·입단예정) 선수로 구성돼 있다. 차운숙 코치는 포천고를 졸업했으며, 고3때 국가대표로 발탁 경희대학교 4학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마산시청에서 선수겸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정승혜, 양은혜 차운숙 코치, 장여진, 김경화 선수(좌부터)

서 경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을 전공한 후 포천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발탁을 발탁했다. 장여진 선수는 대전 대성여상을 졸업했고, 김경화 선수는 포천고를 거쳐 경희대, 정승혜 선수는 전주 심성여고를 거쳐 경희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양은혜 선수는 서울 경영정보고를 졸업했다. 또 포천시청 배드민턴부에 입단할 예정인 이단비 선수는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다.

최근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의 수상 현황은 지난해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차운숙 코치와 정승혜 선수가 도대표로 선발됐으며, 제47회 전국어름절총별 배드민턴대회에서 양은혜 선수가 동1,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차운숙 코치, 김경화·정승혜·양은혜·장여진 선수가 각각 금을 수상했다.

차운숙 코치로부터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배드민턴부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차 코치는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팀의 기반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지난해 창단된 배드민턴부는 아직 기반을 잡지 못했다"며 "포천시는 배드민턴부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의 경우 포천고등학교 선수들이

최근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적을 연일 거두고 있어 스포츠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지역적인 선수 확보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선수들을 타 실업팀 등 스포츠로 퍼지 않도록 포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천고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배드민턴은 단체전이기에 때문에 시청의 타 운동경기부에 비해 각종 대회에서 성적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전국에는 13개 팀이 있는데 이중 3개는 삼성이나 대교, KT&G 등 대기업 실업팀이고 나머지 10개는 시·군 소속팀인데, 3개의 대기업선수들이 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이루어져 있어 넘어야 할 산이 큰 것은 사실이다. 우선 스포츠가 아니라 계약금 제도를 통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편 차 코치는 "포천시에서는 그동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 코치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포천시 토종선수들이 전국 어디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실력이 뛰어나 포천 출신 선수들의 수급만 원활히 된다면 전국대회 제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초·중·고 기반의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 육성에 있어 실업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차 코치는 "선수들은 주로 종합체육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실업팀 선수들이 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고교팀 선수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연계 교육이 되기 때문에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며 "좋은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고 다짐했다.

차 코치는 앞으로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청 배드민턴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를 바라며, 기반이 잡히는 데로 관내 각 클럽을 순회하면 배드민턴을 알리고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이번까지 포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역도, 육상, 태권도, 배드민턴부를 탐방해 각 팀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을 보도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외적인 성적향상은 물론 포천체육 발전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산 품목

-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 낙시용품 포장지류

가공 제품

- 스탠딩삼방, M자가공,
-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도

-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